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 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NOL, 중국 칭다오항에 2,580만 달러 투자 확정-----	2
□ 칠레 발파라이소(Valparaiso)항, 제2터미널 concession 입찰 유찰-----	3
□ 페루 Pisco항 복구공사 9월 입찰예정-----	4
□ 콜롬비아 Buenaventura항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5
[공 지]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6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책임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박철원 연구원(02-2105-2982, ironwon@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 NOL, 중국 칭다오항에 2,580만 달러 투자 확정

- 지난 5월 18일,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NOL 그룹은 중국의 SITC International Holdings Company Limited사 및 QQCTU사(Qingdao Qianwan United Container Terminal Co., Ltd.)와 칭다오항에 건설 중인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한 JV(Joint Venture)인 QQCTU사(Qingdao Qianwan United Container Terminal APL-SITC CO. Ltd.)를 설립·운영하기로 결정
 - JV에 대한 NOL 그룹의 총 투자금액은 총 2,580만 달러 규모임
- JV가 운영할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의 규모는 2개 선석(선석길이 660m)으로 연간 시설능력은 150만 TEU임
- 한편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부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JV는 상부시설인 7기의 Post-Panamax급 크레인과 함께 16기의 RMGC(Rail-mounted yard gantry crane)를 설치, 2011년 후반기에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하여 30년간 운영할 예정임
 - 신규로 개장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NOL 그룹의 자회사인 APL사와 SITC사가 운항하는 선박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터미널로 운영될 예정임

※ 2010년 칭다오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200만 TEU로 2009년 대비 17% 증가

자료 : Ci-Online, 2011.05.19. / Qingdao Qianwan United Container Terminal Co., Ltd. 홈페이지.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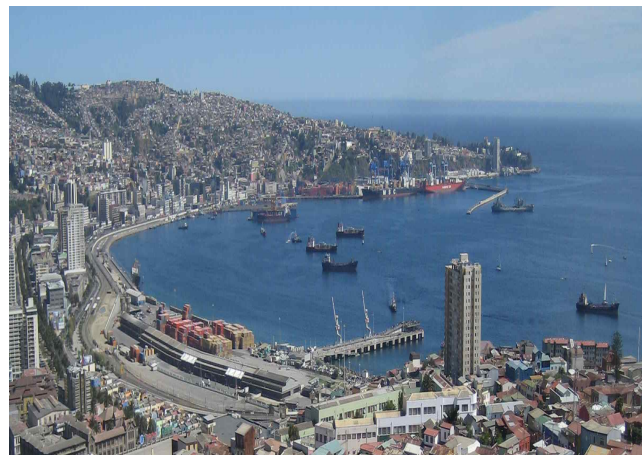
□ 칠레 발파라이소(Valparaiso)항, 제2터미널 concession 입찰 유찰

- 칠레 발파라이소 항의 제2터미널 concession 입찰에 참여기업이 없어 유찰되었음
 - 칠레 발파라이소 항의 제2터미널 concession 입찰사업 초기에는 약 18여개 기업이 관심을 보였으나, 자격 평가에서는 3개 기업만이 통과하였으며 입찰 마감인 5월 1일까지 참여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concession 절차가 중단된 상태임
 - 발파라이소 항만공사인 EPV(Empresa Portuaria Valparaíso)의 CEO인 Harald Jaeger는 “항만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항만 개발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발파라이소 제2터미널 개발사업은 지역 상공회의소(local Chamber of Commerce) 및 관광청(tourism office)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음
- 대안으로는 제1터미널의 운영사인 TPS(Terminal Pacífico Sur Valparaíso)의 concession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발파라이소 항만은 칠레 GDP와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Central Zone에 위치할 뿐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간의 주요 도로인 리베르타도르(Libertadores)와 가장 가까운 서부연안 항만임
 - 한편 발파라이소 제2터미널은 약 3억 5,000만 달러의 투자규모로 2014년 개장이 목표임¹⁾

<칠레 발파라이소 항만 위치>



<발파라이소 항만 제1터미널 현황>



자료 : www.bnamericas.com, 2011.05.02. / www.portstrategy.com, 2011.05.19.

송주미 책임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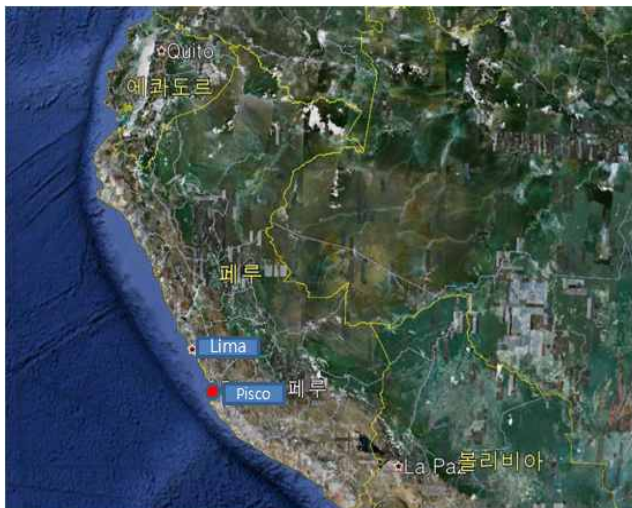
1) 국제물류 위클리 제65호 참조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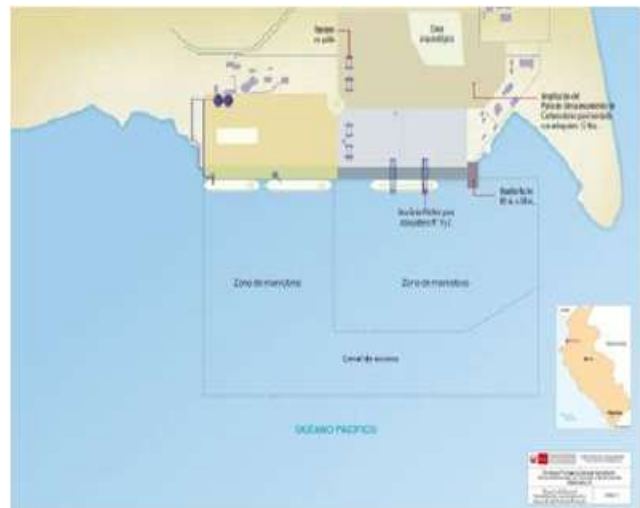
□ 페루 Pisco항 복구공사 9월 입찰예정

- 페루투자청(Proinversión)은 지난 5월 12일 Pisco항 프로젝트 민간투자진흥계획 수정안을 승인하여 발표
 - Pisco항은 페루 중부 Ica주에 위치하여 페루 최대항인 카야오항에서 남쪽으로 280Km 지점에 있으며 1969년에 건설되었으나 2007년 Ica주 대지진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되었음
 - 길이 700m의 4개 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북쪽의 제1, 2선석은 국영항만공사가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인프라시설의 복구, 건설 및 유지관리를 맡게 되며 양허기간은 30년임
 - 공사는 2단계로 나뉘고 기초공사에 5,500만 달러(부가세포함)이상, 수요에 따른 추가공사에 5,600만 달러(부가세포함)로 구성
 - 기초공사는 제3, 4선석 건설 및 현대화, 4Ha 창고건설, 제2창고의 복구, 다목적부두의 14m로의 증심, 전기공사, 기존건물의 리모델링 등
 - 추가공사는 5.25Ha의 창고의 증설 및 사일로 건설, 연간 1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제 1, 2선석의 현대화, 4Ha의 컨테이너 야적장, 14m까지 증심, 운영 장비구축 등
- 그러나 언론사 Andina는 올해 6월에 대선 2차투표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 상황에 따라 11월 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언급

<페루 Pisco항 위치>



<Pisco항 개발계획도>



자료: www.proinversion.gob.pe, 2011.05.20. / www.maritimoportuario.cl, 2011.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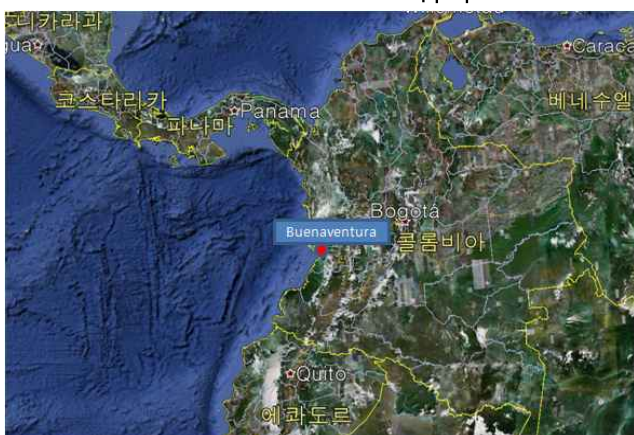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콜롬비아 Buenaventura항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 항만운영사인 Grup Martim TCB는 5월 13일 콜롬비아 Buenaventura항²⁾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
 - 운영은 계열사인 TCBuen이 담당하며 운영 첫해인 2011년에는 25만 TEU를 처리할 것이라고 Gabriel Corrales TCBuen 대표는 전망
 - 신규 항만인프라는 1단계에서 2억4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길이 480m, 깊이 13m, 표면적 14Ha, 장비는 Post Panamax급 크레인 2기, Panamax급 크레인 1기, RTG 크레인 7기, 리치스택커 2기를 설치함
- 한편 5월16일 TCBuen과 협력관계에 있는 콜롬비아 GEPSA(Grupo Empresarial del Pacifico S.A) 사는 Buenaventura항에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2개의 신규 터미널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
 - 하나는 광물용(석탄) 터미널로 연간 3백만~5백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하나는 액화석유 터미널로 3년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Buenaventura항은 파나마운하와 인접하여 남미에서 아시아로의 최근거리 항으로 콜롬비아 수출의 60%, 특히 커피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콜롬비아 최대항으로 올해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1,35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
- * Grup TCB: 스페인 제1의 항만운영사로 1972년 설립되어 현재 스페인 Barcelona(2), Canarias(3), Valencia(2), 브라질 Gijón, Paraguá, 쿠바 Habana, 멕시코 Progreso, 터키 Bahía de Nemrut 등 전세계 13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 중인 글로벌 터미널운영 회사

<Buenaventura 위치>



< Buenaventura항 현황>



자료: www.maritimoportuario.cl, 2011.05.17. / www.mundomaritimo.cl, 2011.05.20.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2) 국제물류 위클리 제92호 참조

[공 지]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조사 목적

- 국토해양부는 해운 · 물류 관련 유망사업 발굴 및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물류네트워크(GLN)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조사 기간

- 2011. 4.25. ~ 5.31.

□ 신청 대상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 신청 대상 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 투자 · 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 · 운영
-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 · 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김현성/전태영, 02-2110-6372, 8558)

※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